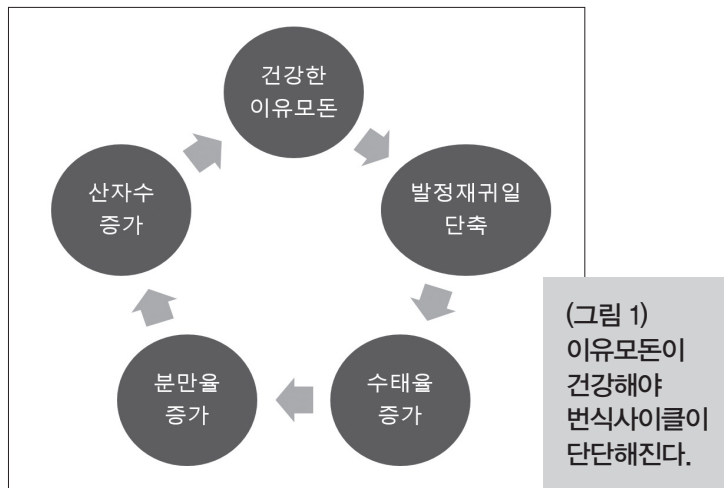


# 모돈의 외음부 농 발생으로 인한 성적 저하 사례 및 처치 방법



박 건 욱 수의사  
(주)돼지와건강 원장

**분만사** 성적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보통 복당 이유두수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분만사 관리자는 모돈보다 주로 포유자돈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. 그러다 보니 자칫 이유 상태의 모돈을 간과하기 쉬운데, 이유모돈이 건강해야 번식 사이클이 단단해지고, 결국에는 복당 이유두수 역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법이다.



## 1. 외음부 농 발생으로 성적이 나빠진 사례농장

1 산 차	1 산	2 산
교 배 일	3/17 P	8/21 P
웅돈번호	95077, 95077, 95077	95000, 95000
재 발 일	4/7, 4/24, 5/14	9/11
예 정 일	7/10	12/13
분 만 일	7/10	12/13
산 자 수	14	14
개시두수	12	
이유일	8/5 ~ 8/15	
이유두수	11	
ACC P 및 기 사 항		8/18 농 9/20

(표 1) 사례농장의 외음부 농 발생 월별 통계와 발생시기

월	농 발생건수	① 교배 전	3건
2월	1건	② 교배 후	35건
3월	1건	③ 분만 후	10건
4월	2건		
5월	1건		
6월	2건		
7월	21건		
8월	20건		

▲ (사진 1) 사례농장의 번식성적

본인이 방문한 농장 중 모든 외음부 농 발생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다. 그리고 이로 인해 임신사 성적(분만율)과 분만사 성적(복당 이유두수)이 모두 아주 나빠진 상황이었다. 이 경우 본인은 해당 문제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짐작했다. 왜냐하면 번식 사이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.

외음부 농 발생이 주요 원인이라면, 농 발생 원인부터 찾아봐야 한다. 우선 임신사 직원에게 이유 후 외음부 농이 발생하는 시기를 모돈카드에 모두 기록해 달라고 했다. 총 48건의 외음부 농 발생 중 월별 통계와 각각의 발생시기는 (표 1)과 같았다.

## 2. 외음부 농 발생의 원인과 사례농가 분석

모돈의 외음부 농 발생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.

- ① 깨끗한 분만 실패
- ② 교배할 때 상처 또는 세균 감염
- ③ 돈사 바닥으로부터 세균 감염
- ④ 기타 질병

본인은 이 농장의 경우, '깨끗한 분만 실패'가 주원인이라 판단했고,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(1)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발생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다.

날씨가 무더워지면 분만 간격이 늘어지기 쉽다. →난산 빈도 증가→후산정체 빈도 증가→자궁내막염 등 자궁질환 증가

(2) 교배 후 농 발생(35건)시기는 대부분 교배 후 4~5일 이내였다.

자궁경관은 번식 사이클에서 발정시기와 분만시기에만 열리기 때문에 자궁에 문제가 생겨 농이 차 있다면, 이유 후 재귀발정 시기와 교배 후 재발시기에 자궁경관이 열리므로 이 시기에 주로 농이 배출될 수 있다. 만약 재발이 올 때만 농이 주로 배출되었다면 교배 시 잘못된 카테터 사용 등을 주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, 이 경우 재귀발정 시기에 주로 농이 배출되고 있었다.

### 3. 사례농가의 처치 방법

깨끗한 분만 실패가 원인이라면 모돈이 분만을 쉽게 완료하도록 도와주면 된다.

(1) 음수 섭취

분만사가 원치돈사이므로 혹서기에 돈사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분만 전 모돈이 음수를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분만 전 모돈의 경우, 깨끗이 청소한 급이기에 물을 채우고 일으켜 세웠고, 분만 중인 모돈에는 물 호스로 입 주변을 적셔 주었다.

(2) 간호분만 매뉴얼의 강화

① 난산의 판단 기준 강화 : 분만 간격 2시간→1시간으로 강화

② 분만 후 디노프로스트(또는 클로프로스테놀) 2ml 일괄 주사(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)이므로 혹서기에 한정해서 사용)

(3) 분만 후 외음부 농 발생에 대한 대처 강화

분만 후 2~3일까지는 모돈 외음부에서 정상적으로 ‘오로’가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인 ‘오로’와 비정상인 ‘농’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, 2~3일 기다리다가는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오로나, 비정상 농이냐의 판단 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시켰다.

① 분만 후 외음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온다.→정상



분만 후 2~3일까지는 모든 외음부에서 정상적으로 '오로'가 나올 수 있다. 하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인 '오로'와 비정상인 '농'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, 2~3일 기다리다가는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오로나, 비정상 농이냐의 판단 기준을 조금 더 단순화시켰다.

- ① 분만 후 외음부에서 맑은 액체가 나온다. → 정상
  - ② 외음부에서 탁한(흰색 또는 누런색) 액체가 나온다. → 비정상(농으로 간주)
  - ③ 외음부에서 당장 액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외음부 주변이 지지분하다. → 비정상(농으로 간주)
- 농으로 간주되면 해당 농장의 상황과 담당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면 된다.



▲ (사진 2) 분만 후 외음부주변이 매우 지지분함.

② 외음부에서 탁한(흰색 또는 누런색) 액체가 나온다. → 비정상(농으로 간주)

③ 외음부에서 당장 액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외음부 주변이 지지분하다. → 비정상(농으로 간주)

이렇게 농으로 간주되고 난 경우에 치료는 해당 농장의 상황과 담당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. 본인은 베틀라부틴염산염(자궁경관 이완제)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. 왜냐하면 분만이 끝나고 농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후산이 쉽게 빠져나오기 위해 선 닫힌 자궁경관을 다시 열어 주면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.



본인의 경우, 분만사 성적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. 복당 이 유두수와 더불어 평균 재귀발정일과 분만율이다. 물론 분만율은 누가 뭐래도 임신사 성적이다. 하지만 뛰어난 임신사 성적이 분만사 도움 없이 가능할 수 있을까? **P&P**

● 문의사항 \_\_\_\_\_  
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 
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.  
 글쓴이 e-mail : [graciasvet@daum.net](mailto:graciasvet@daum.net)